

공업지역 내 환경오염 업종 신규 유입 제한

전주시, 생태도시분야 6대 역점시책·23개 주요사업 제시 올 신규사업으로 '팔복동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올해 전주시는 주거지역과 가까운 공업지역 내 환경오염 업종의 신규 유입을 제한한다.

또, 도시 외곽지역 산림의 맑은 공기가 도심으로 유입되도록 '도시 바람길 숲'이 조성되고 군부대와 교도소 이전 신축사업 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는 15일 열린 생태도시국 신년브리핑을 통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전' 구상을 목표로 생태도시 분야 6대 역점시책, 23개 주요 사업을 제시했다.

6대 역점시책은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도시계획 추진 △정원도시 전 주민들기를 위한 녹지공간 확대 △상생과 배려의 삶이 있는 주거환경을 통한 생태문화도시 조성 △전주형 주거복지 활성화 △사람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친환경 도시개발 △경고값은 도로, 걸으면 행복한 도로만들기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도시경관 개선 및 공동주택 관리 지원 강화 △빈집실태조

사 및 정비계획, 민관이 함께하는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등을 통해전주의 비전과 핵심사업들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공업지역 내 환경오염 업종의 신규유입을 제한하고 기존 입주업체의 업종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팔복동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또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첫마을길 2단계·삼천동 막걸리골목 공간개선사업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용역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유이순체험원 및 생태놀이터 조성,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전주형 사

회주택 공급사업, 교도소 이전 신축사업 등 그간 추진해온 생태도시 분야의 핵심 사업들도 올해 완료하거나 구체화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시는 에코시티 내 공원과 녹지공간에 도시 숲을 조성하고, 민성지구와 혁신도시, 장동마을 주민 등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한 기지제의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할 계획이다.

또, 효천지구 삼천 횡단교량 설치사업과 에코시티 지구 내, 외연계도로 개설도 본격화 한다.

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중인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이주대책 및 보상 등에 본격 착수하고, 전주대대 이전 사업도 올해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

고 오는 2021년부터는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노후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 △민간아파트의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주택 계약원가심사 자문단' 운영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 확대 △방치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용역 등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업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2019년은 개발과 보전,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도시의 모습을 다지는 해"라며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외국인 전주 홍보대사 전주의 매력 알린다

시, '한옥마을에서 한 달 살아보기' 진행

전북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 세계에 전주의 문화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홍보대사가 된다.

전주시는 외국인 전주 홍보대사들이 한 달 간 전주한옥마을에서 실제 생활하고, SNS 등을 통해 전주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알리는 '한옥마을에서 한 달 살아보기' 입주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첫 번째 외국인 홍보대사는 키르기스스탄과 팔레스타인 출신 대학생 2명으로, 이들은 한옥마을 창작예술공간(완산구 어진길 31)에서 오는 2월 14일까지 한 달간 생활하게 된다.

특히, 이들은 한지와 한식 등 전주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거나, 경기전 등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면서 느낀 전주의 매력을 영문과 자국어로 경험담을 작성,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시는 올해 전북대와 세종학당 재단 외국인 대상 수요조사를 거쳐 총 9명의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총 6회에 걸쳐 입주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스케이 씨(키르기스스탄, 여, 25세)는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고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전주에 오게 됐다"며 "전주의 아름다움을 SNS를 통해 세계에 알리고 싶어 신청하게 됐다"고 지원 동기를 밝혔다. /송효철 기자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 '백지화도 가능'

전현희 의원 '택시업계도 사회적대타협 기구 동참해달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5일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택시 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해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는 물론 더 많은 대화 기회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으며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며 "이를 통해 택시 종사자들의 후생 증진과 이용자의 승차난 해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0월 카풀 운전자를 모집하고 12월 7일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17일 카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택시 기사 분신 사망 사건 등 반발이 커져 자 잠정 연기했다.

같은 해 12월 17일 국회 국토교통부가 '카풀을 1년 동안 시범적으

로 실시하고, 하루 2만만 승님을 태우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을 제시했지만 택시 업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카카오 앱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어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던 택시 기사가 분신 사망하는 사건이 재차 발생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업계의 갈등은 깊어져갔다.

그 사이 국토교통부가 카풀 사태 관련 택시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택시 단체 분열을 이용하려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택시 업계와 여론이 들끓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함으로써 택시업계와 대화의 장으로 가기 위해 한발 물러섰다.

한편 이날 오후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 을)이 "택시업계가 사회적대타협기구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카카오택시서비스 중단이 현실화됐으니, 택시업계도 사회적대타협 기구에 동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강석훈 기자



KF-16 전투기 미세먼지 제거하는 군인들. 고농도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이 유입된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서 제38전투비행전대 대원들이 항공기 부식 방지 및 내구력 보증을 위한 세척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38전대 제공)

통신업계에도 '죽음의 외주화'

2014년 LGU+ 전주고객센터 상담사 자살 이후 고객센터 사정 변화 없어... 살인적 경쟁 유도

2014년 10월,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상담사(고 이문수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가 인센티브 미지급, 실적 압박, 상품판매 강요로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고 이문수 씨의 유족은 산재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2월 산재를 승인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퇴사 당시 회사는 고인보다는 민원해결을 우선해 고인에 대한 배려나 보호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그의 유서에 따르면 LG유플러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일상적인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퇴근조차 하지 못하며 이런 무리한 실적압박은 원치 않는 상품 가입과 같은 고객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그의 죽음 이후 4년이 넘게 지났지만 LG유플러스 고객센터의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2018년 4월에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 노동자가 "전처럼 실적에 대한 압박과 퇴근 후 수당도 없이 추가근무 및 교육을 하고, 팀장이 상담사 개인의 응대를 감청해 상품판매 시도를 했는지 확인한다"고 토로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처럼 고객센터에서 살인적인 실적 압박, 상품판매 강요가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곳에도 역시 원정

과 하청이라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구조의 고질적인 병폐에 있다.

LGU+ 고객센터는 엘비휴넷, CSONE 파르너 등 하청업체에게 고객가입 등 영업업무를 외주화하고 원정인 엘지유플러스는 책임을 외면하며 살인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계약직 노동자의 죽음처럼 '죽음의 외주화'와 같은 모습이다.

검찰은 2014년 당시 고객센터 재직자들의 수당 미지급 사건을 다루면서 "근로자들이 실적을 내면 하청인 엘비휴넷이 아닌 원정인 엘지유플러스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때문에 하청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의 판단대로라면 LG유플러스 고객센터 노동자는 LG유플러스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LG유플러스가 이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하다는 주장이다. /송효철 기자

남원 한 타이어슈리점서 화재

소방당국은 15일 오전 3시 32분경 남원시 도동동 한 타이어 슈리점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이 불로 점포 95.28㎡가 모두 타 4500여 민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석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올 전주형 공동체 육성 '스타트'

시, 18일까지 온두레공동체 예비학교 입학식 신청 접수

이웃과의 교류가 단절되면서 사라져 가는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2019 전주형 공동체 육성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전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2019년 온두레공동체 선발을 위한 공동체 예비학교 입학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온두레공동체 사업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단계인 다단계와 지속성장이 가능한 공동체를 키우는 이음단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희망단계,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아파트공동체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되는 공동체 예비학교는 '2019년 전주형 온두레공동체 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선행단계로, 신청한 공동체별로 2~3명의 구성원이 참여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이뤄진다.

특히, 공동체 예비학교에서는 온두레공동체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단체가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인 회계 및 사업계획서에 대해 전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직원들이 밀착 도움으로 △회계의 방향과 적절성 △사업의 구성 부분 등을 집중 관리받을 수 있다.

또한, 시와 전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다단계계를 넘어 2년 차, 3년 차 공동체에 도전하는 이음단계와 희망단계 공동체에 대해서도 다단계계보다

수준 높은 공동체 심화학교를 진행함으로써 더욱 전문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공동체 예비학교에 참여를 원하는 공동체 대표 및 회원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전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wlsdy9366@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예비학교에 참여한 공동체는 사업신청서를 보강한 후 오는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이루어지는 공모접수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온두레공동체 육성사업을 통해 전주시 곳곳에서 이웃들과 소통하고, 전주를 따뜻한 사랑의 도시,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한겨울, 한옥마을로 동심여행가자'

시, 내달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공연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한겨울에도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여행객들을 위해 문화관광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전주한옥마을 365일 연중 콘텐츠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1월과 2월 매주 토요일 전주한옥마을 한겨울 동심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겨울 동심여행"은 동절기에 특히 부족한 문화관광콘텐츠를 추가 발굴하고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5일 첫 공연 시

어린이와 여행객들에게 호응을 얻은 버블매지공연이 매주 토요일 한옥마을역사관 마당에서 펼쳐진다.

또한, 강아지 탈을 쓰고 여행객들과 함께 소통하며 공연하는 사자탈춤과 마당극이 전주한옥마을 중심부인 물레방아 사거리에서 펼쳐지고, 한옥마을을 거리 곳곳에서 거닐을 쓴 도깨비들이 전통 악기 등으로 창작 연주를 하며 어린이들을 맞이하게 된다.

동시에, 시는 전주한옥마을 내 공예체험장 활성화와 여행객들이 추위를 피해 실내에서 전주한옥마을만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공예체험장의 위치와 정보를 표기한 '한옥마을 별별(別別) 여행지도'를 제작·배부하는 등 여행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나갈 방침이다.

김용태 시 한옥마을지원과장은 "한옥마을은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여행환경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 시설과 함께 인생사진을 찍을 수 있는 멋있는 풍경들로 인해 겨울철에도 여행객들의 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올겨울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여행객들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함으로써, 연중 여행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행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잔소리 하지마' 아내 흥기로 위험한 50대 남성 검찰 송치

황집에 아내를 폭행하고 흥기로 위협한 5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고창경찰서는 특수폭행혐의로 A모 씨(52)를 구속해 기소함으로써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모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40분경 고창군 지택에서 아내 B모씨(51)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날 교통사고를 낸 A모씨는 아내가 "운전 좀 조심해서 하라"고 핀잔을 주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모씨는 "잔소리를 계속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